

韓日 완성차 대표주자, 전기차시장 엇갈린 행보

현대차그룹 퍼스트무버 질주 '승승장구' **도요타** 전량 리콜 '뒷걸음질'

현대차그룹, 미·유럽서 높은 성장세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 돌파
도요타, 첫 전기차 제품 품질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현대차는 수십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팔로워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시대에 '고장없이 오래타는 차'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첫 전기차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102만 2284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60만 1448대, 기아는 42만 836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글로벌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BYD의 누적 판매량은 각각 364만 9007대, 337만대로 현대차그룹에 비하면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순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



현대차 아이오닉 5.

인다.

현대차그룹은 첫 전기차인 블루온을 시작으로 쏘울 EV·아이오닉5·EV6·GV60·아이오닉6 등 전기차 모델을 15종으로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국내 등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전년 대비 196.2% 증가한 5만 802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순위로는 테슬라(49만 1000대)와 포드(6만 1575대)에 이은 3위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만 해도 2437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만족했지만 2015년 1만 1063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8년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를 선보이며 6만 1964대, 2019년 10만 1362대, 2020년 17만 81632대,

2021년 25만 2718대, 2022년 37만 1838대로 매년 성장을 이어갔다. 이같은 성장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 E V6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넓은 실내공간과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뛰어난 주행거리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4만 346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쏘울 EV를 내놓고 그해 662대의 판매량을 거두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후 출시 한 니로 EV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등 주요 차종이 한해에만 3만대 이상



기아 EV6

의 판매량을 거두며 성장을 이끌었다. 2019년 4만 3455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9만 5917대, 2021년 13만 5408대 등으로 급증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지난해 11만 9791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국내 완성차 가운데 9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년 새 5배 증가한 것이다.

다만 현대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도요타는 지난해 첫 양산형 전기차 '비지포엑스'(bZ4X)를 전량 리콜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리콜 대상 bZ4X 2700

대이며, 유럽과 북미, 일본 등에서 진행됐다. 도요타가 bZ4X를 리콜하기로 한 것은 차량과 타이어를 연결하는 볼트에 문제가 있어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집중했던 도요타가 전기차를 내놓으며 전략 변화에 나섰다. 제품 품질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현대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현대는 2040년까지 모든 차량 생산을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연료전기차 판매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80% 비율로 높이고, 6년 동안 5조원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등에 업고 펄펄 나는 中 자동차
“한국도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

中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 자리
“FTA 조기 체결 등 韓 경쟁력 키워야”

중국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5일 발표한 '2022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시장 수출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54.4% 증가한 311만대로 261만대를 수출한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320만대를 수출하며 1위가 확정적이고 한국은 잠정 230만대로 6위가 예측된다. 중국의 수출물량 중 신에너지차(BEV, PHEV, FCEV)는 약 68만대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20년까지 100만대 전후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100% 이상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중 절반가량은 미국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다.

〈중국 제조사별 자동차 수출 대수〉

회사명	수출대수
상해기차	609,747
기서기차	310,769
장안기차	193,873
동풍기차	171,057
지리자동차	141,907
장성기차	111,744
북경기차	82,021
장화기차	79,845

기간 : 2022년 1~9월 /Fourin

2022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는 중국에서 9만 7182대를 수출하며 중국의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 20만 2000여대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기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 이란, 중남미 등 1인당 소득이 낮거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곳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신에너지차를 필두로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개선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주요 국가는 이란, 인도, 베트남, 미국, 이집트 등이었지만 2022년에는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 사우디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오세아

니아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된 모습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빈자리를 중국 자동차(하발, 지리, 체리)가 채우며 2022년 1~11월 기준 러시아 시장점유율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에서는 판매량 상위 10개 브랜드 가운데 3개가 중국 브랜드(지리, 장안, MG)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 중”이라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동, 중남미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과 신규 FT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 외투기기업의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지 및 국내기업의 전기차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코스피 2400대 회복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31포인트(1.39%) 오른 2428.57로 장을 마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거주자외화예금 1109.8억弗… 사상 최대

한은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달러 강세 꺾이며 기업 중심 큰폭 증가
지난달 국내 거주자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풀 꺾이자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쌓아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109억 8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5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과 유로화예금이 증가했다.

지난달 달러화예금 잔액은 85억 9000만 달러 증가한 953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상거래 대금이 예치되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등 기업들이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일부기업의 수출결제대금이 예치되면서 5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90억 1000만 달러 증가한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9억 9000만 달러 증가한 109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961억 달러)은 86억 6000만 달러, 개인예금(148억 8000만 달러)은 13억 4000만 달러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115@